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7주일
제37권 36호(가해) 2017년 7월 30일

[묵사]



소로들을 밟아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 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프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권력과 부귀를 바탕으로 하여
더 큰 부귀와 명예를 자자손손 남부럽지 않게 갖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복음의 예수께서는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 우리가 이를 하늘나라

보물과 진주(하늘나라)
-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산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주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참된 행복의 나라이다.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과 마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이다.

또한 하늘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멀고먼 피안(彼岸)의 나라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넘쳐나는 자리가 우리가 이를 하늘나라이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영순 아네스, 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호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홍정림 요안나, 김민중 안드레아, 민석준 토마스 & 미에 & 민영준 마르코 & 엔지 & 미아 & 니나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이경영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우일환 모이세, 최경숙 수산나, 석순영 아네스 김두철 아브라함
	(생)송명환 베드로,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손석 스테파노,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최동한 안드레아, 김상규 니콜라오 & 정판영 레오 & 현석주 아오스딩, 임명희 켈마, 강영애 실비아, 유현자 안나, 엄정자 분다, 김벌리 안나고, 이종원 베드로 가정, 권오상 바오로,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 (1 Kings) 3,5-6.7-12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당신가르침을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
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
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8,28-3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13,44-52<또는 13,44-46>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
혜 하나도 잊지 마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 물의 문제

28. 깨끗한 식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 그리고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의 원천은 보전과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공급은 오랫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이제 많은 곳에서 수요가 지속 가능한 공급을 초과하였으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대도시들은 물 부족 시기를 경험하였고 매우 심각한 때에는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물 부족은 특히 아프리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인 들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물이 넉넉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극심한 부족현상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29.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질입니다. 날마다 많은 이들이 수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과 더불어 미생물과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질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불량과 물 부족으로 생기는 이질과 콜레라가 어린이의 고통과 사망의 주요원인입니다. 특히 적절한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특정한 광업, 농업,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들로 지하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와 화학제품들이 계속해서 강,호수,바다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34	234	208
봉헌	269	269	268
성체	303	303	305
파견	245	245	218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한국 휴가를 마치고 과테말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큰 본당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당의 신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받은 느낌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갈라짐'이었습니다. 원래 신부가 최소 2명은 있어야 할 큰 규모의 본당인데, 신부의 부족으로 보좌 신부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주임 신부 혼자서 지구장 신부의 역할부터 본당 신부의 몫까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 사목적인 손길이 본당 신자들 하나하나 마음까지는 닿지는 못한 듯 보였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며, 바쁘게 신자들과 살아가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제관에 도둑까지 들었습니다. 공소의 미사를 마치고, 바로 본당의 성시간과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나 돈을 훔쳐 갔고, 마지막에는 칼까지 사용하여 사무실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당의 총회장님께서 모든 단체장을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들 목소리를 높여가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온 신부가 3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하니 걱정하는 마음이 한 가득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회의를 하는 그 순간, 저는 갈라진 공동체 안에서 '일치'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살아왔던 신자들이 지금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신자들에게 "도둑 한 명 덕분에,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도둑이 정말로 고맙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들 웃으며 그 말에 공감하였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당에서 겪은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하느님의 손길과 그 '선'의 완성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 삶의 주변에는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직접 체험할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비유하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는 것이고,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손길, 특히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머물고 싶은 천국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곁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과테말라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같은 마음으로

관찮다는 말은 대체로 관찮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곧 좋아질 거란 말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저 역시 그런 위로에 힘겹고 외로운 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관찮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중입니다.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 : 교사 4명 학생 20명
- 30일(주일): 4:00 pm도착 예정
- 문의 :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성령대회 접수

- 티켓 판매와 도시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접수 마감: 8/13)
- 가정봉헌 및 광고 접수 (마감:8/7)
봉헌하신 개인, 가정, 사업체를 위하여 대회기간 중 매 미사에 봉헌됩니다.
- 접수처: 사무실 앞 현관입구, 주일미사 전후

◆제 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6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7일(주일)오전8시-오후6시
- 장소: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물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7/1개)

주의사항:장소 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ks@gmail.com
☎ (213)700-9399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30일 : 짜장밥 (\$3, 토동2,3반)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남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숙경 김교복 김대우 김병태 김병학 김성택 김영덕 김옥찬 김 옥 김 은 김정엽 김주량 김철민 박개순 박광자 박운모 위진록 유영균 윤현정 윤화경 이제옥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장영진 조준계 조화숙 주상현 최상만 한 영 홍인표 합계:\$3,170	강숙경 김교복 김대우 김병학 김영덕 김정엽 김주량 김철민 박개순 박광자 오명섭 윤현정 윤화경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장영진 조준계 조화숙 최상만 합계 : \$2,420
주일미사헌금 :\$2,462	감사헌금 : 김영덕 나경흠(\$300)

남가주 소식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주관: 예수회 로올라 영성 센터(Loyola Institute For Spirituality)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사도행전과 독서모임 가을학기 시작

1. "면형무아 성경공부" 사도행전
 - 개강: 화요일 8월 8일(화) 오전 9:30-11:00
수요일 8월 9일(수) 오후 7:30-9:00
2. "면형무아 독서모임"
 - 개강: 8월 10일(목) 오전 9:30-11:00
(둘째,넷째 목요일 / 월2회모임)
 - 장소: 영성센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 내)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김 M. 도미니카 수녀 (562)714-7769
(562)461-8100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남가주 청년 성령기도회

KYCR New Life in the Holy Sprit Seminar
"Be Still" (Psalms46:11)

- 제목: 청년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 일시: 8월 25일(금) 오후5시~27일(주일)오후4시
- 장소: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의 집
- 대상: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참가비: \$150(당일 현장 \$25)
- 문의: Jeane Yoon (562)676-7933,
김 모니카 (310)999-1142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2박3일 침묵피정

- 주최: 미서부 한인 CLC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일시: 8월4일(금)~6일(주일)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Oceanside, CA
- 마감: 7월 23일(주일)
- 문의: 하 세실리아 ☎ (323)578-2230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소공동체
부장

김준 방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2
3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배태임 안나
07/05(수)오전11시 성당
이근태 세르지오&정기은비오
07/15(토) 오후6시성당 강당

토렌스 서

1
2
3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 아네스
(419-309-7256)
박명순 안나
(968-7600)

김주량 요한
07/15(토) 오후5시
김다두 &아네스
07/08(토) 오후5시30분
윤선희 로사
07/16(일)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2
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07/21(금)오후7시30분성당
이윤옥 마리아
07/18(화)오전11시
전하현 마리아
07/09(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황안젤라,조안젤라,이엘리사벳
07/16(일)오전11시 텔론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3

박진수 스테파노
(749-8151)
1,2반과 같음

박진수 스테파노
07/14(금) 오후7시 성당2층R3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2
3
4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고 체칠리아
07/14(금) 오후7시
안희정스콜라스티카
07/09(일)야회모임
장 안드레아
07/14 (금) 오후6시
이귀란 아네스
07/12(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아이의 순수함으로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똑같겠지만, 늦게 얻은 아들은 특별히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여섯 살 된 제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전 기도를 막 마친 상태였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나요? 어디에서 듣고 있고, 어떻게 들어주나요? 내가 소원을 말하면 갑자기 들어주나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는지 평소에 궁금했던지, 아이는 오랜만에 채워주는 아빠 옆에서 꽤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네가 아빠에게 장난감을 사 달라고 막 조르면 어느 날 아빠가 사 주지? 그것처럼 기도는 하느님께 조르는 것과 같아. 하느님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들어주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느님께 빌고 싶은 소원이 궁금해서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소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홀라후프를 백 개 하는 것, 두 번째는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엄마 아빠가 힘들고 바쁠 때 나 혼자 잘 수 있는 것.” 한창 홀라후프를 연습하는데 다섯 개를 넘지 않아서 꽤 속상했었던 모양입니다. 더 열심히 조르면 하느님은 분명 그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예수님은 우리 옆의 어디에 있어요? 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혹시 아빠, 예수님이 개미처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잠시 망설임 후에 “예수님은 투명인간과 비슷하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을 마주할 때면 언제나 뭉클함을 느낍니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 폭 빠져있을 때쯤, 아이는 스케치북에 뼈뿔 뼈뿔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한참을 공들여 십자가를 그린 아이가 엄마에게 진지한 얼굴로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티라노사우루스를 그려줘.” 엉뚱하고 순수한 마음에 우리 부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또, 어느 날엔 집안에 모신 요셉 성인을 목욕시켜 주는 우리를 보더니, 아이도 물 티슈로 성모님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표정으로 성모님이 깨끗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아기 예수님 성물을 자신의 키보드에 태워서 신나게 드라이브 시켜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예수님은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듯합니다. 딱 여섯 살 만큼의 눈높이와 순수함으로요.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보살핌과 은총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순수함에 대한 하느님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 위정호 알로이시오/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환경공학과 교수

[길을 찾는 그대에게]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사하여 주소서”라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겠지요?

☞ 고해성사는 그리스도를 대리한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축복과 화해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생각이 나는 죄를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함부로 이용하는 못된 짓이니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핑계를 대어 고해하지 않는 행위는 하느님께 가증스러운 죄를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해에 앞서, 충분히 성찰해서 죄를 명료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는 자신의 뉘저리를 풀어놓거나 인생 상담을 하려는 분들께 고해소에서는 오직 죄에 대해서만 고해하기를 당부하고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또 사제는 성사의 도구일 뿐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성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사의 비밀을 까맣게 지워주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사제들은 매번 체험하니까요. 솔직히 신자들의 고백에서 대충 얼버무리는 느낌을 받을 때 사제는 맥이 빠집니다. 기다리는 뒤편을 위한 배려인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인지 혹 성사 중에 야단을 듣고 상처를 얻을까 두려운 마음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염려하지 말고 낱알이 죄를 고백하여 성사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2016~2017년도 본당 공동체 살림살이 보고

본당재정계좌 현황				성전계좌현황					
수입	미사헌금		131,312.00	성전헌금		98,285.00			
	교무금		221,230.00	기타	감사헌금	15,240.00			
	기타	사순 애금 /애루살렘 성자보존기금등	23,491.93		성물판매	7,130.41			
		주보광고비 / 달력 광고비	6,070.00		전교 헌금, 도네이션	6,440.00			
		주일학교 등록금	22,332.48		재활용	181.78			
		감사헌금	150.00		2차헌금	5,985.00			
				입금합계		133,242.19			
	수입총계		494,586.41	수입 총계		133,242.19			
	지출	인건비	급여	40,616.02		LOAN 원금	41,851.43		
			사제 수도자 & 사무장 활동/수도자주거비	43,538.20		LOAN 이자	57,564.73		
		의료보험	34,231.41						
		신부님, 수녀님 피정및 휴가 비용	2,000.00						
		소계	120,385.63		소계	99,416.16			
사목비		전례비	18,481.47						
		주일학교 지원비	38,852.94	지출총계		99,416.16			
		선교, 전교, 종교 교육비	9,492.15						
		행사비(추수감사절, 성탄, 부활, 체육대회등)	19,161.88	2016~2017년 성전계좌결산		33,826.03			
		성가대보조비	18,779.42	6월30일현재 성전계좌 은행잔고		312,544.49			
		그룹활동보조비	3,000.00	6월 30일현재 성전 본 Balance:1,398,715.55					
		성탄&부활절신문 광고, 선물, 세미나, 환골	5,906.56						
		자선기금	13,182.93						
		소계	126,857.35						
	관리운영비	전화요금	7,299.33						
		전기요금	17,759.01	장학금계좌 현황					
		상.하수도요금, 정수기	14,841.24						
		쓰레기 + 해충방제	4,116.56						
		엘리베이터 관리및 수리	2,599.89						
		가스	1,544.10						
	성당달력	2,698.00							
	스프링클러설치	3,643.70							
	청원관리(14,144.88+청소8,680.00소모품2,871.41)	25,396.09							
	보험(교구청 화재, 자산, 자동차등)	43,793.32							
	출판관리(420.00)및 프리젠테이션(2,645.45)	3,065.45							
		복사/인쇄기 대여	6,135.25	전년이월금					
		주보용지구입(1,611.85+사무용품/비품구입)	2,295.27						
		이흥 바당공사	17,400.00						
		은행수수료 449.10 성당관리및 수리	4,479.73						
		차량(리스 관리, 등록비, 가스바름)	6,997.23						
		세금(급여세 & 재산세)	16,439.18						
		알람, 경비, 소파하가	2,658.46						
		소계	183,161.79						
	지출총계	본당지정계좌 총 지출:	430,404.77				기타	장학금 도네이션	10,000.00
	2016~17년 결산 잔액						(25,818.36)	수입총계	
				지출총계	2016장학금지급	2,000x7명=14,000			
6월 30일 현재 본당 재정계좌 잔고:			318,991.85	지출 총계		19,835.17			
Petty Cash(현금) 보관:			200.00	장학금계좌 잔액		19,835.17			
				(2017년 장학금 지급예정 6명 \$12,000)					

특이

재정부장 : 김병태 요셉

사목회장 : 최기남 이교보

신부님 : 오창근베드로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매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O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4228 Crenshaw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